

한전공대, 입지보다 '세계 최고'가 기준이다

광주시·전남도, 유치 경쟁에 지역 미래 청사진 마련엔 소극적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커리큘럼·인재 담을 방안 마련 나서야

6·13 지방선거 지역현안 이번엔 해결을

<2> 한전공대 설립 준비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공대의 입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커리큘럼·인재를 담을 수 있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전력의 공대 설립 결정 이후 광주·전남지역 내에서는 그 입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이수가 집중되면서 정작 한전공대의 위상과 기능, 영향 등의 증진·향상 방안과 이를 통한 지역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던다는 평가다. 한전도 가열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한전공대 유치전에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입지 선정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입지를 선정할 후 부상할 수 있는 문제를 상생의 틀에서 협의하는 '선 입지선정 후 지역협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의 '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8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한전은 국내외 입지 선정 추진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주변 환경, 대학운영 방안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마련하고, 세부 평가 기준 항목 분석 및 중요도 등에 따라 항목별 가중치를 담은 입지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지 선정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별 종합평가

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한전의 복안이다. 한전의 용역 발주와 계획이 공개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벌써부터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한전공대 유치를 경쟁적으로 주장하면서 쟁점화시킬 경우 용역 결과와는 무관하게 향후 후폭풍마저 우려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남구에서 한전공대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전남에서는 나주에 이어 목포, 순천 등이 한전공대 유치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 같은 지역 간 경쟁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갈등과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후보자는 "한전공대는 광주·전남의 모든 후보자나 지역이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며 "지역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하는데 가장 눈길을 끌 수 있는 것을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22년 개교를 앞두고 입지를 서둘러 선정한 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들어가야 하는 한전, 그리고 전체적인 설립 작업을 총괄해야 하는 정부는 지역 내의 이 같은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전남 방문에서 "한전공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설립 주체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을 당부할 정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각 지역이 한전에서 발주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후 최종후보자 선정 등의 과정을 지켜본 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생의 틀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치 경쟁을 벌이기 보다 한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선정을 촉구하고, 이후 자칫



북한 응원단 열띤 응원 22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남자 회전에서 북측 응원단이 눈송이 모양 응원 도구를 흔들며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외교 2라운드 ▶ 2면 여자컬링 준결승 ▶ 18면 문화올림픽 후끈 ▶ 19면 캐나다 꺾은 미국 ▶ 20면



소외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한전공대의 시너지 효과는 과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포항

공과대학(포스텍)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특정 장소에 한전공대가 자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분원이나 테스트베드·기업과의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로의 파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틀을 더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적정지 국방부에 통보

광주시가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용역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후속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군 공항 이전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22일 "최근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를 국방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용역 결과에는 그동안 적정지역으로 꼽혀왔던 영암, 무안, 해남, 신안 등지에서 열었던 설명회 결과와 각 지역의 특성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일부 지역은 단체장이 공식인 탓에 구체적인 이전 찬반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공항이 있는 무안은 찬반이 맞서고

있으며, 영암은 이전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군수가 부재 상태인 해남은 면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2016년 11월부터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결정과 지원계획 수립,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지역 특성 따른 용역결과 토대 국방부, 예비후보지 선정 돌입

있다. 중간 용역 결과 영암과 무안, 해남, 신안 등 4개 군 6개 지역이 군 공항 이전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국방부 통보에서 지자체 주민 면담 진행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자료를 토대로 군사작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예비 후

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이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국방부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하면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이전작업이 시작된다. 예비 후보지에 선정되더라도 주민 반대가 우세하면 최종 후보지가 될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 적정지역을 국방부에 통보한 만큼 군 작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예비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정농단 은폐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러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등장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충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민정실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피고인이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서원(최순실)에서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보고 감토한 뒤 항소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시추가모집] 2018. 2. 22(목) ~ 23(금)
[대학원추가모집/신학대학원 편입추가모집] 2018. 2. 19(월) ~ 22(목)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 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겹겹이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 E R 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